



『이빨 사냥꾼』

2017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스페셜멘션 수상작)

지 은 이 : 조 원 희

출 판 사 : 이야기꽃

출 판 년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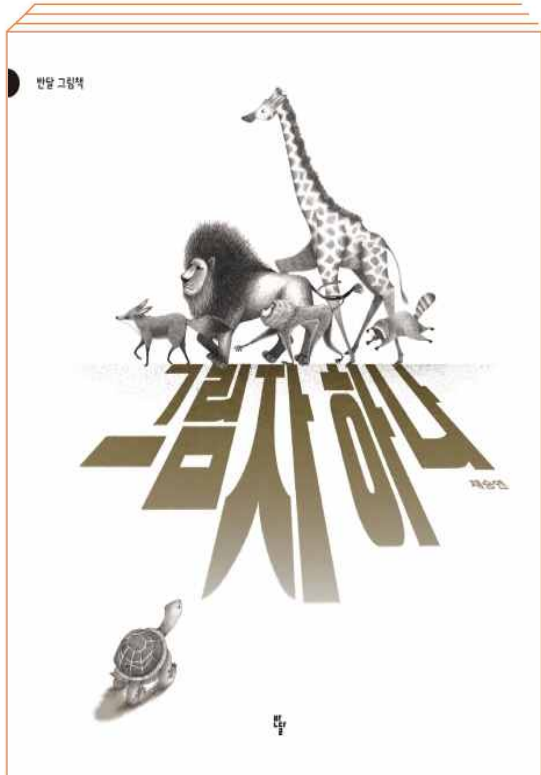
청구 기호 : 유813.8조원희이

책 소 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코끼리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로 인해 죽은 코끼리 수는 12만여 마리입니다. 하루에 약 85마리가 살해당하는 이유는 오직 인간들을 위한 멋들어진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빨 사냥꾼』은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코끼리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의 만행을 그림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커다란 회색 아이와 코끼리 얼굴을 한 사냥꾼을 등장시켜 인간과 코끼리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먹거나 입거나 사람이 살아갈 때 코끼리 이빨이 꼭 필요한 것일까, 어른들은 왜 상아 사냥에 나선 것일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며 동물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안내합니다.



『그림자 하나』

2019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프리마 스페셜멘션 수상작)

지 은 이 : 채 승 연

출 판 사 : 반달

출 판 년 : 2018년

청구 기호 : 유808.9반달그반v.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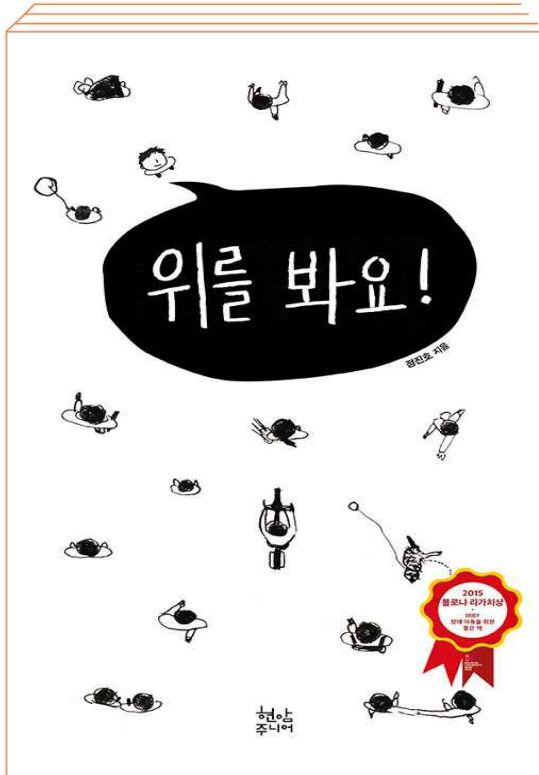
책 소 개

그림자는 왜 짧아졌을까?

기다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와 곰이 그 그림자를 보고 가만히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기린이 그림자 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악어, 코끼리, 하마가 찾아옵니다.

사는 곳이 다른, 이렇게나 많은 동물들이 모여들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채승연 작가의 첫 그림책 『그림자 하나』는 이렇듯, 책 읽는 이의 호기심을 한껏 부풀리며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작가는 함께 사는 고양이 복냥씨와 치치를 생각하며 이 그림책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와 닿습니다.



『위를 봐요!』

2015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프리마 멘션 수상작)

지 은 이 : 정진호

출 판 사 : 현암주니어

출 판 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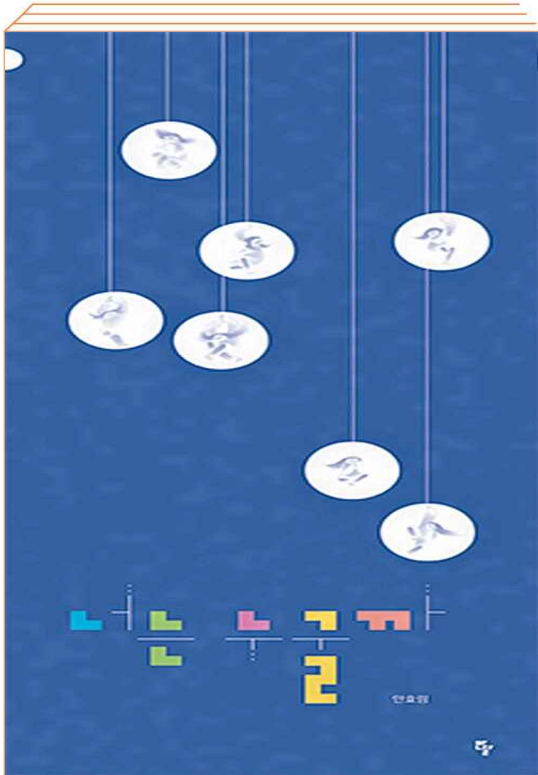
청구 기호 : 유813.8정진호위

책 소 개

앞만 보며 걸어가던 사람들이 위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지는 차를 타고 가족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자동차는 바퀴를 잃었고, 수지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수지는 매일매일 베란다에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길에서는 사람들이 앞만 보며 걸어 다닙니다. 수지는 검정 머리만 보이는 사람들을 마치 개미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는 아이들과 강아지가 놀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들의 행렬이 생기기도 하지요. 수지는 묵묵히 그 모습들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어느 날 수지는 마음속으로 힘껏 외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라도 좋으니…… 위를 봐요!’ 수지의 외침을 듣기라도 한 듯, 기적처럼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수지를 쳐다봅니다.

수지의 세상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는 누구일까」

2016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
2017년 UE le immagini della fantasia 34th 선정작

지 은 이 : 안 효 림

출 판 사 : 반 달

출 판 년 : 2018년

청구 기호 : 유808.9반달그반 v.29

책 소 개

한 아이가 가느다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줄을 놓더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 내립니다. 주르륵주르륵 미끄럼을 탑니다. 또 한 아이는 몸을 길게 늘려 통통 떨어 집니다. 무섭지도 않나 봐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방이에서 뛰놀 듯,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 아이가 뛰어내리면 다시 여러 아이가 통 하고 뛰어오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신나게 놀입니다. 푹푹 뭉쳐 짹 짹 짓기도 하고, 흩어 져서 이곳저곳으로 여행도 떠납니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여러분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놀고 싶어 질 텐데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책을 함께 읽으며 과연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과나무밭 달님』

2019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스페셜멘션 수상작)

지 은 이 : 권 정 생

출 판 사 : 창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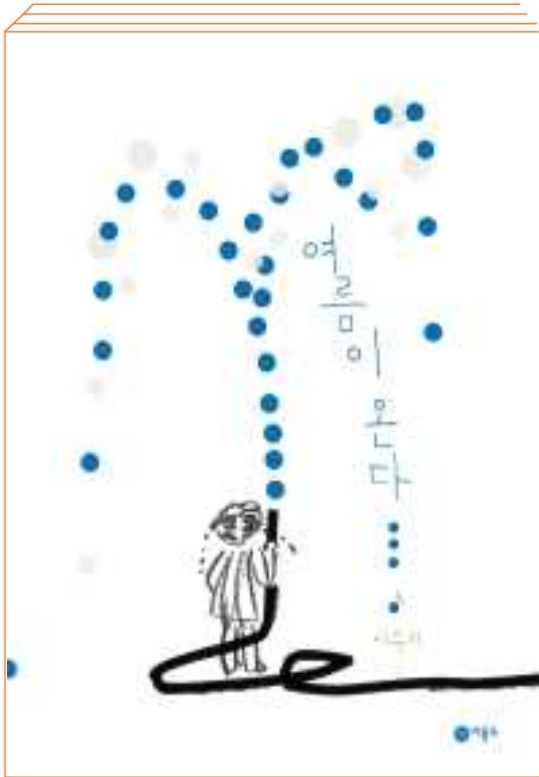
출 판 년 : 2017년

청구 기호 : 아813.8권정생창 v.3

책 소 개

필준이 모자는 강가 과수원지기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필준이 어머니 안강댁은 떨어진 단추도 제대로 꿰매지 못하고, 베개를 업고서 소꿉놀이를 하는가 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 장 구경을 가고 싶다 하며 외아들 필준이를 졸라 댁니다. 필준이는 병든 어머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이 집, 저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열두 살 때부터는 머슴살이를 해 왔지만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신세이지요.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병든 어머니를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작고 허름한 외딴집에서나마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발표되어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전해 온 동화인데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써낸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이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과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름이 온다』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지 은 이 : 이 수 지

출 판 사 : 비 룡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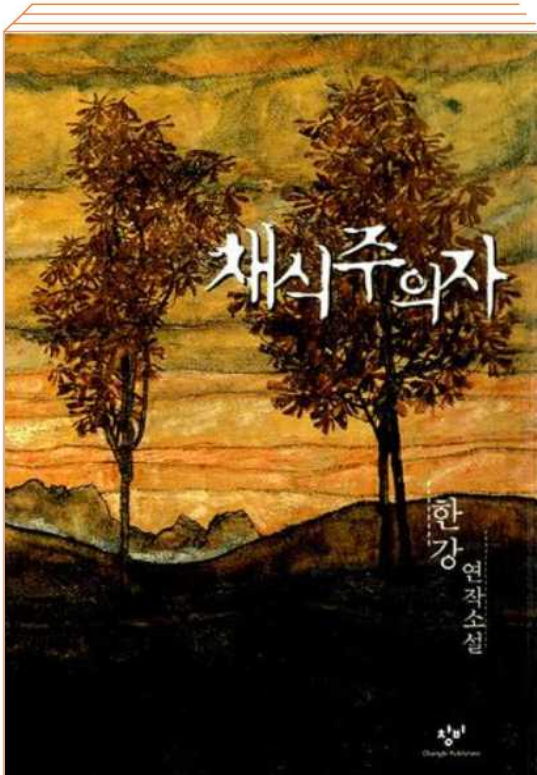
출 판 년 : 2021년

청구 기호 : 808.9비룡소비297

책 소 개

『여름이 온다』는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시킨 독특한 그림책으로, 드로잉이 주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입니다. 작가가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비발디의 사계! 유독 아이들이 좋아했던 곡이기에, 아이들의 귀로 들어 보고 이미지를 떠올려 본 것이 이 책의 시작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음악에서 느꼈던 그 감흥을 아이들의 놀이, 특히 흥겹게 놀았던 여름날의 물놀이와 접목해 표현했다고 해요. 음악에서 표현된 자연 속 여름과 아이들 실생활에 다가온 여름 그 점점에 한바탕 신나는 이미지 놀이가 펼쳐지는데요.

감칠맛 나는 짧은 글은 아이의 일기장 형식을 빌어, 여름을 맞이하고, 즐기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듬뿍 담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지 은 이 : 한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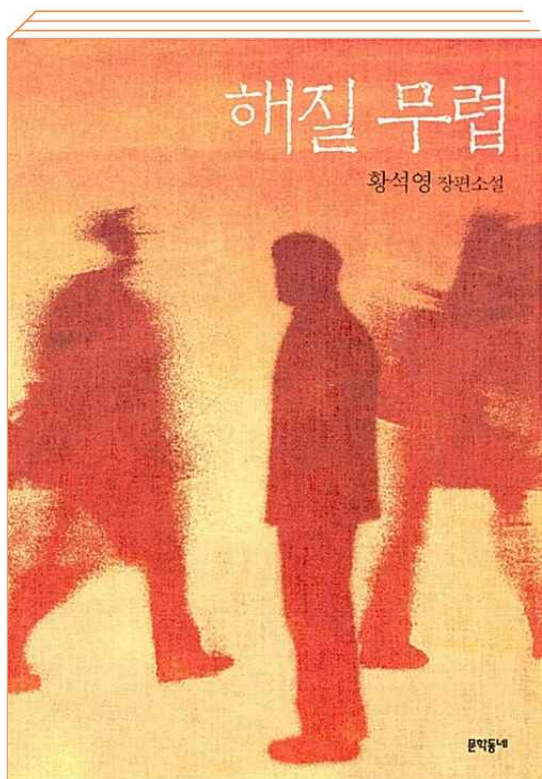
출 판 사 : 창 비

출 판 년 : 2007년

청구 기호 : 813.7 한강,채

책 소 개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를 바라보는 그의 남편 '나'의 이야기입니다. '영혜'는 작가가 이전에 발표한 단편 『내 여자의 열매』에서 선보였던 식물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인물입니다. 희망없는 삶을 체념하며 하루하루 베란다의 '나무'로 변해가던 단편 속의 주인공과 어린 시절 각인된 기억 때문에 철저히 육식을 거부한 채로 '나무'가 되길 꿈꾸는 영혜는 연관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욕망과 예술혼의 승화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던 2부 『몽고반점』은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전체 줄거리에 연결되면서 소설의 텍스트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상처입은 영혼의 고통을 식물적인 상상력에 결합시켜 아름다움의 미학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 단아하고 시심어린 문체와 밀도있는 구성력이라는 작가 특유의 개성을 고스란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해질 무렵』

2018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지 은 이 : 황 석 영

출 판 사 : 문학동네

출 판 년 : 2015년

청구 기호 : 813.7황석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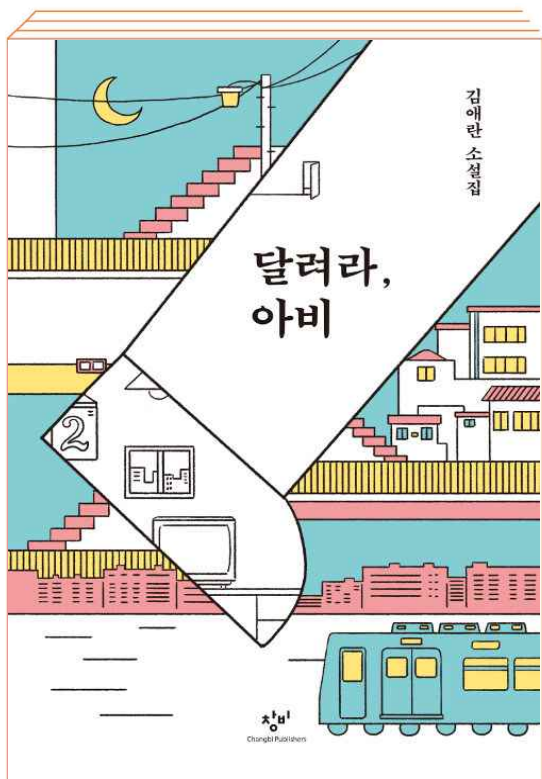
책 소 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관한 쓸쓸하고도 먹먹한 이중주!

이 책은 60대의 건축가 박민우의 목소리와 젊은 연극연출가 정우희의 목소리를 교차 서술하며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세밀하게 그려낸 짧은 경장편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문득 주위는 적막에 잠기고 사람들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홀로 여기 서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바라고 왔는지, 쓸 새 없이 달려왔으나 돌아보니 걸어온 자리마다 폐허인 그런 순간... 인생의 해질 무렵에 서서 길 위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를 돌아보며 살아온 날을 되짚어보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작가 역시 해질 무렵 길 위에 선 채, 해질 무렵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서린 골목들을 밀어내고 삭막한 구조물들을 올려온 지난 역사와 누추하고 서글픈 반지하방 세대의 삶을 쓸쓸하고도 먹먹하게 엮어가며 가슴을 울립니다.



『달려라, 아비』

2014 주목받지 못한 작품상
(프랑스 비평가와 기자들이 선정)

지 은 이 : 김 애 란

출 판 사 : 창 비

출 판 년 : 2019년

청구 기호 : 813.7김애란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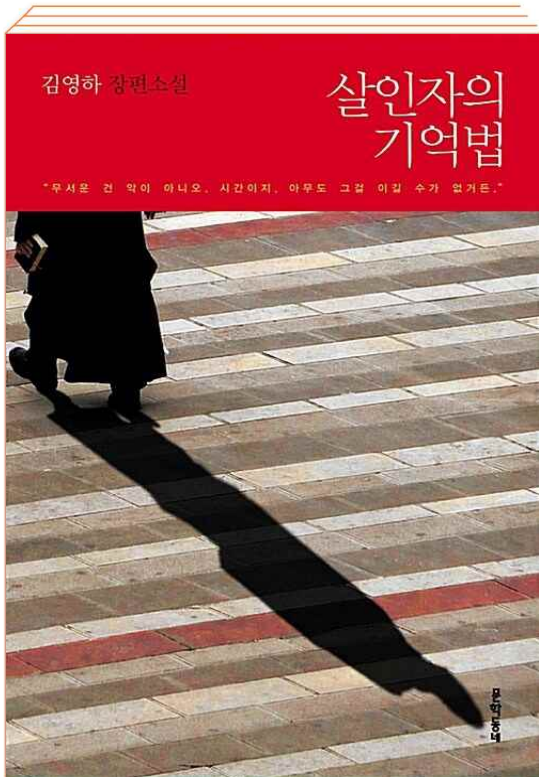
책 소 개

이 책은 『달려라 아비』를 포함한 총 9편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표제작 『달려라 아비』는 어머니와 단둘이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나’가, 만삭의 어머니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대해 떠올리는 상상을 의문스러운 서사와 경쾌한 문장으로 풀어갑니다.

근원적 결핍 또는 실존적 상처이기 쉬운 아버지 부재의 아픔과 페이스스를 아련히 전달하면서, 정신적 상처의 기원과 상처받은 자신을 긍정하는 즐거운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지나온 시간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아홉 편의 사랑스러운 단편들을 통해 우리들의 코끝 찡한 눈부신 청춘을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2020 독일 추리문학상 국제부문 수상
2020 독일 독립출판사 문학상 수상
2020 독일 최고 추리소설 선정

지 은 이 : 김 영 하

출 판 사 : 문학동네

출 판 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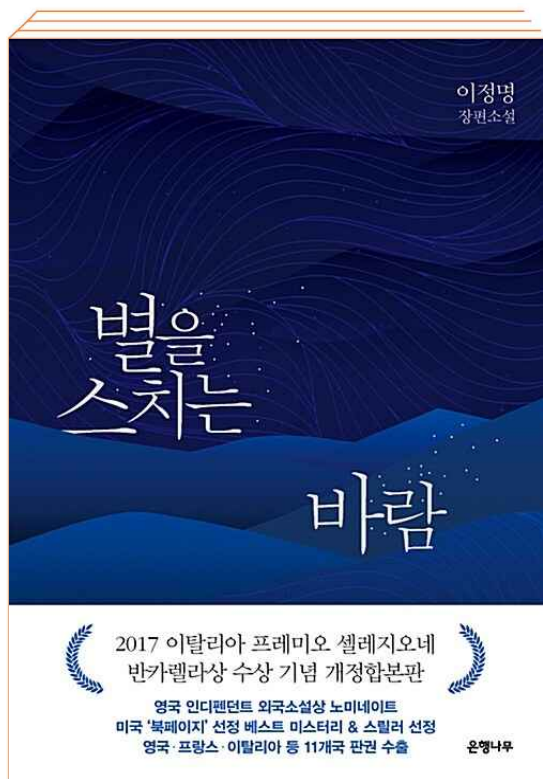
청구 기호 : 813.7김영하살

책 소 개

김영하 작가의 일곱번째 장편소설인 『살인자의 기억법』은 2013년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2020년 독일에서 '최고의 추리소설' 1위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려 희미해지는 기억과 사투를 벌이는 연쇄살인범 김병수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하고, 매일의 일과를 일기로 기록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일지 형식으로 쓰는 짧은 글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러독스와 위트가 넘치는 문장들 속에 감추어진 진의를 찾아가는 독서 경험은 한 편 한 편의 시를 읽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잠언들, 돌발적인 유머와 위트, 마지막 결말의 반전까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삶과 죽음, 시간과 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풀어놓습니다.



『별을 스치는 바람』

2017 이탈리아 프레미오 셀레지오네 반카렐라 문학상

지 은 이 : 이 정 명

출 판 사 : 은행나무

출 판 년 : 2018년

청구 기호 : 813.7이정명별

책 소 개

『별을 스치는 바람』은 《바람의 화원》 출간 이후 작가가 5년 만에 다시 선보인 팩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 윤동주를 등장인물로 내세워 언론과 독자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윤동주가 실제 머문 수용소를 배경으로 전쟁이 낳은 인간성의 타락과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암흑 같은 현실에 빛이 되어준 윤동주의 시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미권을 비롯해 폴란드, 스페인, 일본 등 총 11개국에 작품의 판권이 판매되었고, 2015년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주관하는 외국소설상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참혹한 전쟁 가운데 있는 인간성과 예술의 위대함을 긴박한 추리의 구조로 잘 녹여냈다.”는 평과 함께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프레미오 셀레지오네 반카렐라상을 수상했습니다.